

섬유연합회, 한국-터키 FTA 수혜 기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월22일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1월23일 국내 섬유기업들의 터키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섬유산업연합회 노희찬 회장은 “세계 4위의 섬유수출국인 터키는 국내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터키 FTA가 발효되면 터키의 섬유·의류 시장(평균 관세율 7.9%)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것은 물론 터키가 2011년 9월부터 한국에 부과해온 섬유 세이프가드 관세(12-30%)가 면제돼 국내 섬유수출기업에게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섬유산업연합회는 기대했다.

<화학저널 2012/11/23>